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식당,병원,목욕탕,숙박업소,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7월 1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30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공허한 '1사찰 1부대'

현재 전국에 있는 군법당 수는 360여곳. 이중 근법사들의 손길이 미치는 군단 및 사단급 법당 140여곳을 제외하면 절반이 넘는 연대급 이하 법당에서는 군종병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봉행하며 불교 행사의 맥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대대급 법회는 군종병들이 녹음테잎을 틀거나 병사들과 함께 경전을 낭송하는 등 법문 없이 약식법회로 끝내기 일쑤다. 하지만 군종교 행사에서는 일반 종교 행사와 달리 개인의 자유가 축소된 군생활의 특성상 심신을 위로해 주는 감로 법문과 위문품 전달이 포교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군종병인 김모병장은 "군법사가 참여한 종교 행사에는 군장병들이 많이 참석하는 데다, 지휘관까지 법회 시간은 물론 인원 동원을 배려해준다"며 "군종병이 법회를 주재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군법사 없는 군법회 지역사찰 지원해야

설상가상으로 대대급 법당은 시설도 내무반이나 막사를 개조한 간이 법당이 많아 단독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대대급 부대까지도 거의 마련돼 있는 개신교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군포교에 적신호가 오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군법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만이라도 인근 지역의 사찰과 연계해 스님을 법사로 모셔 군장병들에게 위안이 되는 법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

종단 및 군승단도 방관만 하지 말고 군종병들에 의해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법당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 사찰과의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군포교에 관심 있는 불자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군포교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불자들에게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후원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큰 예산이 드는 일이 아니다. 관심을 가진만큼 행하는 일만 남았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전교사制 도입' 74% 찬성

조계종, '신도법 개정' 승·재가 680명 의식조사

전문 재가지도자 필요성 스님 75.8% 공감

스님과 신도들은 일반 신도의 교육을 담당하고 신행을 지도하며 법회를 보좌하는 (가칭)전교사(또는 전법사) 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6월17일부터 7월3일까지 스님 192명(28.2%), 재가자 488명(71.8%)등 총 6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교·신도관련 종법제·개정을 위한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전교사 제도의 도입'에 대해 73.7%가 찬성을 표했다.

특히 스님(75.8%)들이 재가자(73%)보다 전문적인 재가 지도자의 필요성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각 본말사에 상임포교사를 두도록 한 제도(포교법)가 직지사 마곡사 등 일부 사찰을 제외하고 실시되지 않는 등 재가 지도자들이 활동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그간의 부정적인 사고를 불식시키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전교사는 스님을 대신해 포교 취약지역 및 분야의 법회를 주관하고 각각의 포교분야(계층및 특수전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종단의 인정과 지원하에 신도의 지도자로써의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며 포교활동을 수행하는 과거 '종단 상임포교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포교원은 전법사의 선발및 배치, 운영 등에 관한 방침을 마련중이며, 1백명 이내로 선발해 농어촌과 같은 포교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포교원의 이번 설문조사는 '재적사찰갖기 및 신도등록 실시'에 대해 95.3%가 '계속 실시'에 찬성하는등 전반적으로 신도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의 바람직한 신도 종책과 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스님과 재가자들 사이에 사안별로 견해 차이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포교 및 신도관련 제도 구축에 출·재가가 따로 없음을 보여줬다.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포교사 286명(42.2%), 본·말사 주지스님 165명(24.4%), 교계신문 구독자 74명(10.9%), 중앙신도회 대의원 69명(10.2%), 불교대학 대표자 및 강사 46명(6.8%), 종회의원 스님 27명(4%), 신도단체 임원 10명(1.5%) 등이다. 〈관련 기사 3면〉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종단협 16일 이사회 원불교가입 논의할듯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고산)는 16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및 불교도 금강산 순례 결과보고를 듣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가입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조계종 원로회의 교구본사주지 회의도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탄상)는 15일 회의를 열어 원로회의법 개정에 대한 원로회의의 입장을 결정한다. 원로회의는 지난 3월 원로의원 연령상한선(세납 85세 이하) 설정에 대해 일부 원로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상한선 설정이 종헌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15일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종단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총무원은 본사주지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현안문제 및 종책에 대해 각 교구의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며, 이번 회의도 이같은 방침에 따라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자원봉사 청소년들

'흐르는 땀방울 속에 자비실천의 열매를 맺지'.

올 여름방학에도 전국 청소년 단체와 복지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자원봉사가 전개된다. 6월27일 서울 혜명양로원을 찾은 청소년 교화연합회 소속 청소년 불자 1백20명은 양로원 궂궂을 수리하고 청소하면서 적극적인 자비행을 실천했다. 〈관련 기사 19면〉

"종교채널 의무전송해야"

3대종교 지도자, 대통령·국회의장에 건의

불교TV등 3社 대표도

통합방송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과 정진석 천주교서울대교구장, 지덕 기독교총연합회장 등 3개 종교 지도자들은 3일 케이블TV 종교채널(불교TV, 평화방송TV, 기독교TV)의 의무전송제 도입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3당 대표에게 제출했다. 종교채널 3사의 대표들도 3일 공동명의로 된 동일 내용의 건의문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통합방송법안에는 케이블TV와 관련, 채널티어링제 실시, 공공채널(K-TV) 의무전송 등을 중요조항으로 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서해 연평해전 영향 남북 불교교류 중단

남북불교교류가 6월 발생한 서해안 교전사태로 중단됐다. 진각종과 전국불교운동연합, 불교인권위원회는 당초 5일과 7,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과 장기수송환 문제 등에 대해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조불련이 6월 29일 남북관계 긴장을 이유로 불교교류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알려와 무기한 연기됐다.

도필선 기자

제2회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7월22일~24일, 에버랜드·사찰서 2박3일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작년에 이어 제 2회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사찰과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에버랜드 통나무집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1999년 7월22일(목)~24일(토), 2박3일(사찰1박 에버랜드통나무집 1박)
◇장 소 : 용주사 신륵사 와우정사 경수사 백령사 에버랜드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5백명)
◇참 가 비 : 5만5천원
◇문 의 : 현대불교신문 전화(02)723-1776
◇은행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 선재이벤트
후원 : 조계종 포교원·진각종 통리원·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불교조각원·(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구산선문 참선 기행

7월 : 동리산문(태안사)·화엄사·천은사

7월에는 적인선사 혜철(785~861)에 의해 개창된 동리산문의 중심도량 태안사를 찾아갑니다. 천년의 세월 속에서도 청정 수도승들이 고귀한 숨결로 선법을 전해와 현재에도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태안사에서는 옛누각인 능파각을 비롯해 적인선사조륜청정탑(보물 제273호)과 광자대사부도(보물 제274호) 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각황전 앞 석등(국보 제12호)과 사사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으로 유명한 화엄사에서는 불교의 으뜸 사상으로 꼽히는 화엄 사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지리산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천은사도 참배합니다

◇출발 : 7월 24일(토) 밤11시·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 일양약품·대한불교제과인회

불서출판, 불황의 끝 보인다 8면
열린마당 '목잘린 단군상' 6면

BBS 불교방송 후원회
불자 여러분의 정성과 애정어린 후원으로 불교방송 프로그램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 은행지로 : 8003478 국민은행 : 827-25-0020-943
농 협 : 069-01-238223 외환은행 : 189-13-03929-3
예 금 주 : 불 교 방 송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마포빌딩 (전화 : 02-705-5560~1)

· CELLULOSE FIBER SPONGE · CELLULOSE FIBER SPONGE ·

GREEN SPONGE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님들의 벗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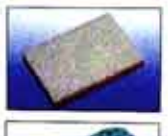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주방일.
잘 닦이고 위생적인 GREEN SPONGE가 해결합니다.
환경오염이 걱정없는 GREEN SPONGE!
주방의 역사를 바꿉니다.

- 다양하고 경제적인 생활용품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제품들이 한곳에 모였습니다.
- 구입하실 땐 만족을, 다쓰고 버릴 땐 흐뭇함을 느껴보십시오.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한 양질의 제품만을 선보이겠습니다.

그린 셀룰로즈파이버 스폰지의 특성
● 환경오염을 막아줍니다.
쓰고 버린 후에도 100% 분해되므로 환경오염의 걱정이 없습니다.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강한 흡수력이 물이나 오물 등을 빠르게 흡수하여 흠집을 남기지 않습니다.
●위생적입니다.
물에 삶아 소독할 수 있으며 건조가 빨라 여름철에도 위생적입니다.
●부드럽고 탄력이 뛰어납니다.
부드러운 감촉과 뛰어난 탄력성으로 구석구석 잘 닦입니다.
●적은 양의 세제로도 충분합니다
천연펄프를 사용한 부드러운 재질로써 소량의 세제로도 충분한 거품이 생깁니다.

그린 스폰지 GT-001(사각형)
규격 85×135mm
용도 식기, 유리그릇, 냉장고, 조리기구, 자동차 등 세척시
특성 뛰어난 흡수력과 탄력력으로 잘 닦이며 삶아 사용할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

그린 스폰지 GT-002(타원형)
규격 90×120mm
용도 식기, 조리기구, 싱크대, 코팅제품 등 세척시
특성 부드럽고 흡수력이 뛰어나 오래 사용해도 위생적입니다


그린 수세미 GT-003(사각형)
규격 75×115mm
용도 식기, 유리그릇, 냉장고 및 그밖의 물기 제거시
특성 천연스폰지와 수세미의 이중구조로 흡수력, 탄력력이 뛰어납니다. 잘 닦이고 건조가 빨라 위생적입니다

그린 목욕 스폰지 GT-004
용도 목욕시
특성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 어른뿐만 아니라 아기 목욕시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린 화장 스폰지 GT-005
용도 화장시
특성 부드럽고 탄력성이 뛰어나 화장이 잘 먹습니다

그린 병 스폰지 GT-006
용도 좁은 유리잔, 물통, 아기 우유병 등 세척시
특성 편리한 손잡이와 뛰어난 흡수력으로 구석구석 잘 닦입니다

그린 거품 스폰지 GT-007
용도 식기, 조리기구, 유리그릇 등 세척시
특성 세제를 담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 사용이 편리하며 스폰지와 접촉되는 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어 적당량의 세제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린 압착 스폰지 GT-008
용도 자동차, 주방기구, 유리 등 세척시, 아기 및 성인 목욕시
특성 약간의 물기만 닿아도 점점 커지고 원하는 내용, 색상 인쇄가 가능해 판촉물로 적당하며 부드럽고 거품이 잘 일어 세제가 절약됩니다

GREEN TEX는 환경만족, 고객만족을 약속합니다. 저희 그린텍스는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 환경을 안족시키며 품질향상에 매진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21세기 환경을 이끌어가는 기업! 저희 그린텍스의 미래입니다.

GREEN TEX 주식회사 그린텍스 GREEN TEX. CO., LTD.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 동 628-14 정호빌딩 2층 TEL:02-3409-2235(代) FAX:02-3409-2236
■공 장 : 경북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202번지 (풍산농공단지) TEL:0571-858-5661(代) FAX:0571-859-3639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어떤 형태나 크기의 스폰지도 가능합니다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